

## 작목반 육성과 농협의 과제

이 상 영

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

### The Roles of Crop Units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Korea

Sang Young Lee

Horticulture and Special Products Department,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 Summary

The Crop Units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 is experiencing many difficulties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hanges. For the developing of Crop Units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 Crop Units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 make endeavor to lead members' spontaneous participation and the efficient communication between members, and to offer the efficient extension services and support activities for improvement of members' economic and social status.

#### I. 들어가는 말

작목반이란 「거주지역 또는 경지집단별로 동일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모여, 협동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농산물 산지 유통의 핵심 조직」이다. 다시 말해서 생산자 농민들이 구성원간의 협동활동인 재배기술 및 정보의 교환, 공동작업, 시설의 공동이용, 공동구·판매활동 등을 통하여 영농의 과학화와 경영비 절감 및 유통개선을 촉진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여려는 산지 생산자 농민들의 품목별 협동조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농가별 경영규모가 영세하여 개별농가로서는 현대적인 농업시설을 설치하거나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새로운 작목의 선택이나 선진영농기술을 도입하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개별농가로서는 영농자재의 구입이나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성 미약에 따

른 시장교섭력 약화는 물론, 상업을 전업으로 하는 상인과의 거래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반 영농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영농 및 판매활동을 조직적·집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농민들의 자율의사에 의해 조직 운영되는 작목반과 같은 생산자조직의 육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이러한 생산자조직 육성의 필요성에 따라 농협은 1970년도부터 작목반을 산지 생산·유통의 기초조직으로 육성해 왔으며, 그 동안 조직수의 확대는 물론, 생산기반 조성·영농비용 절감·산지유통 개선활동 등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 및 농산물 유통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급변하는 대·내외 유통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영농조합법인 육성 및 생산자조직에 대한 자율경쟁원리 도입 등으로 작목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주변환경의 변화는 작목반에 대하여 그 역할이나 기능 그리고 규모면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협의 작목반 육성방향도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목반 육성현황 및 운영실태 평가 분석에 기초하여 작목반의 발전방향과 농협의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6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조직의 규모화 및 품목별 전문화를 통한 대·내외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문제이다. 둘째, 시·군 단위 연합조직 결성으로 지방자치제에 부응한 효과적인 농정활동 수행 및 지역농업 활성화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이다. 셋째, 대단위 물류센터건설 추진으로 대변되는 신물류업태에 부응한 표준규격 출하의 정착에 관한 문제이다. 넷째, 제한된 여건 하에서 고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 시설원예농업의 육성에 관한 문제이다. 다섯째, 작목반과 지역농협간의 역할분담체제 확립을 통한 상호 보완 발전방안에 관한 문제이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농협, 특히 중앙회의 효과적인 지도·지원 방안에 관한 문제이다.

## II. 작목반의 육성현황과 문제점

### 1. 작목반의 발전과정

#### 가. 조직 태동 및 확대기('70~'76)

1960년대 말까지는 산지농협의 조직형태가 里·洞 단위 조합으로서 그 자체가 농민들의 생산조직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생산조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1969년 이후 추진된 산지농협의 읍·면 단위 합병추진에 따라 조합원과 농협간의 연대관계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합원 영농과 조합사업의 지속적인 밀착화를 위하여 里·洞 단위 생산자조직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농협에서는 1970년도부터 里·洞 단위에 협동회(뒤에 영농회로 일원화)를 조직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하부조직으로서 1970년도에 1,484개의 작목반을 조직 육성하게 됨으로써 작목반이 태동하게 되었다.<sup>1)</sup>

이 시기의 작목반은 정부 증산시책의 영향으로 주로 식량작물 위주(전체 작목반중 57% 점유)로 조직 운영되었으며, 판매와 유통보다는 증산에 더 많은 비중을 둠으로써 아직 상업적 영농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농민들의 공동체적인 영농의식이 고취된데다 1972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한 영농자금의 영향으로 조직수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증가추이를 보여 '73년에는 3,458개, '76년에는 12,028개로 급격히 증가되었다.

#### 나. 조직 정비기('77 ~ '82)

농협이 작목반을 조직·육성해 오는 동안에 농촌진흥청에서도 작목반과 설립목적이나 구성원이 비슷한 농사개량구락부를 조직하는 등 지도기관간의 중복과 혼선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생산자조직에 대한 지도·지원체제 일원화 추진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서, 작목반과 농사개량구락부를 통합, 새마을작목반으로 재탄생 되었다.<sup>2)</sup>

이 시기에 특기할 만한 것은 작목반의 대중을

<sup>1)</sup> 1970년대 이전에도 작목반과 유사한 성격의 자생적조직이 있었으나 여기서는 작목반이라는 명칭으로 농협이 육성한 시기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sup>2)</sup> 농수산부고시 제2952호('77. 9. 20)에 의해 행정·지도·농협등 각 기관별로 지도해 오던 농촌의 유사한 협동조직체를 일원화하여 새마을영농회·새마을부녀회·새마을청년회·새마을작목반 등으로 통합하고 이들 조직을 새마을운동의 실천조직으로 육성 지원하게 되었다.

이루었던 쌀 작목반이 해체되어 새마을영농회로 흡수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작목반은 원예·축산등 이른바 성장작목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상업적 영농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이 기간중에는 그 동안 활동이 부진했던 형식적인 조직을 정비하는 작목반의 내실화가 정부차원에서 추진(농수산부 문서 제1115-130, '81. 2월)되었으며, 아울러 활동이 활발한 동종 작목반들을 모아 작목회를 결성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조직의 규모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작목반 조직정비를 위한 이러한 일련의 노력 결과, '77년에 15,000개에 달했던 작목반수가 '82년에는 6,647개로 줄어들었다.

다. 협동출하반과 공촌기('83~'91. 6월)

1960년대에 시작된 경제개발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우리농업은 반자급자족적 식량증산 중심 농업으로부터 상업적 영농으로 많은 진전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70년대 후반부터는 채소·과일등 일부 소득작목을 중심으로 생산집중에 따른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농업의 주요정책방향을 '70년대의 식량증산 위주에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83년부터 농협을 통하여 채소·과일류를 중심으로 협동출하반을 조직 육성하였다. 이렇게 하여 '83년 4,830개로 출발한 협동출하반은 조직육성자금 등의 정부지원에 힘입어 '90년에는 12,425개로, 작목반과 통합되기 직전인 '91. 6월에는 12,771개로 증가 하였으며, 동 기간중 작목반의 수도 계속 증가하여 '83년 11,058개에서 '90년에는 16,758개로 크게 증가함으로써 그야말로 조직의 홍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협동출하반은, 작목반과 그 기능면에서 거의 유사하나, 공동출하에 중점을 두어 생산보다는 유통측면이 강조되었고, 농협공판장과 같은 법정도매시장에 공동출하하는 방향으로 지도·육성됨으로써 상업적 영농의 진전을 가져왔으며,

생산자조직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작목반과의 조직 이원화로 생산자조직에 대한 지도·육성에 큰 혼선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라. 작목반 일원화 및 영농법인 출현기('91. 6월 이후)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업주변의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급속한 변화양상을 보여왔으며, 특히 농업의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생산자조직의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생산자조직의 이원화에 따른 지도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농산물유통 구조개선 촉진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와 농협은 2개의 조직을 통폐합하고 명칭도 작목반으로 일원화(농산물유통 구조개선대책, '91. 6. 10)하여 13,682개의 작목반으로 통합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수입개방위기를 맞아 특히 쌀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품목으로 재부각 되면서 쌀의 생산비 절감이나 미질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어 '93년도 이후부터 쌀작목반이 재조직되어 RPC(미곡종합처리장)와 연계한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이 시기의 작목반 육성방향은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조직단위 규격상품화를 통한 공동출하의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조직자체 고유상표 개발사용 및 품질인증 획득노력등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농업 주변여건의 악화속에서 젊은 농민들의 이농현상이 갈수록 심화됨으로써 농촌인구가 고령화·부녀화되어 조직을 이끌만한 우수한지도자 부재 등의 문제점이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89년 5월, 정부는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의 육성을 천명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이듬 해인 '90년 4월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당시

영농조합법인의 육성방향은 소규모 협업농으로 출발하였으나, '93년 및 '94년의 법 개정으로 설립요건, 조합원자격, 사업내용 등을 크게 확충시켰으며, 아울러 정부의 동 법인 집중육성시책에 힘입어 '94년부터 설립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95년도말 현재 총 2,455개가 설립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영농조합법인은 그 조직규모 및 사업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조합원수는 최저 5명(법규상 최소조합원수)에서부터 수백명에 이르고 있고, 사업형태에 있어서도 작목반과 거의 유사한 협업·공동출하형이 있는가 하면 자체판매·유통, 가공 및 수출까지도 참여하고 있어 작목반과의 관계 정립은 물론, 농협과의 역할분담을 통한 효과적인 지도 육성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2. 산지유통에 있어서의 작목반의 기능과 역할

작목반의 기능과 역할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활동」이다. 다시 말하면, 협동활동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실천하고 있는 영농의 과학화와 경영비 절감 및 산지유통 개선활동이 작목반의 지능이며 역할인 것이다. 작목반의 기능과 역할은 작목반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의 입장에서 보면 작목반 육성목표가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앞으로의 작목반 육성 방안 도출에 참고하고자 한다.

첫째는, 영농의 과학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품목별전업농 육성, 주산단지 조성, 산지시설 확충 및 영농의 기계화 지원 등의 생산기반 조성책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작목반 자체적으로도 계획영농 수행 및 선진영농기술 도입 및 보급을 통하여 영농의 과학화를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협에서는 반원별 영농계획서 작성 및 이의 취합 분석을 통한 작목반의 영농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영농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활동상황을 기록하여 운영성과를 분석,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작목반의 영농계획을 조합의 사업계획에 반영시킴으로써 상호 역할분담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둘째는, 경영비 절감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조직단위(또는 조합단위)로 영농에 필요한 비료, 농약, 시설자재, 포장재 등의 영농자재를 공동구매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자재를 값싸게 구입,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반단위로 공동작업계획을 수립 실천함으로써 작업능률을 높이고 고가의 대형 농기계나 시설을 공동이용함으로써 최대한 영농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기술 습득으로 주년생산 공급체제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효과적인 생산자금 조달 이용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산지유통 개선활동이다. 위의 두 가지 기능은 각각 별개로서 농가소득 제고면에서 보다 중요하게 다뤄지는 반면, 산지유통 개선활동은 위의 두 가지 기능을 포함한 산지에서의 종합적인 농산물 유통개선 실천활동으로서 농가소득 제고면에서는 물론, 소비자 유통과 연계하여 농산물유통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공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상품성 제고활동, 공동출하, 산지유통 시설 및 유통정보 이용을 통한 수급 조정 등이 있다.

## 3. 작목반 육성현황 및 농협의 역할

### 가. 작목반 육성현황

협동출하반과 통합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조직구성현황 변화추이를 보면 총 조직수는 '95년말 현재 23,300개로 '91년말 대비 70%가 증가되었으며, 반원수에 있어서도 67%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조직당 평균반원수는 '91년말 25명에서 '95년말에는 24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별 조직현황에

있어서는 '93년도 이후 재조직되기 시작한 쌀 작목반의 영향으로 식량작물의 비중이 '91년말 4%에서 '95년말 14%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채소류(50%)와 과수(22%)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총 조직수의 급속한 확대추세에 따라 유명무실한 조직이 과다해지는 등의 문제점을 들어 조직의 추가결성은 이제 필요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총 농가수 대비 작목반 가입비율을 보면 중복 가입농가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95년말 현재 33%에 불과하여 총 농가수 대비 전업농 비율인 57%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이와 같이 조직화율이 부진한 이유는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는 농가별 재배작목이 다양하여 마을단위 대상작목의 선정이 어렵고 특히 쌀 작목의 경우에는 최근해야 조직결성이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쌀 작목반은 당분간 급속한 증가를 보일 전망이다. 원예·특작품목에 있어서도 품목별 전업농 육성을 통하여 조직 결성여건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별 주산품목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농업의 지역별 특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

연도별 작목반 조직현황

(단위:개, 천명)

구 분	계	품목별 (유별) 조직현황					반 원 수	농가수 (전업농)
		식량작물	과 수	채 소	축 산	특작기타		
'95 말	23,300	3,222 (14%)	5,042 (22%)	11,617 (50%)	1,758 (7%)	1,661 (7%)	568	1,702 (1,119)
'93 말	17,377	1,427 ( 8%)	3,653 (21%)	10,149 (58%)	955 (6%)	1,193 (7%)	441	1,592 ( 985)
'91 말	13,682	471 ( 4%)	3,276 (24%)	8,378 (61%)	411 (3%)	1,146 (8%)	340	1,499 ( 853)

자료: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  
농림수산주요통계('96)

나. 농협의 역할

최근 일부 작목반이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탈농협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농협과 작목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작목반을 처음 조직하기 시작한 '70년대 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작목반 발전에 있어서 농협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서는 작목반 육성에 대한 농협의 역할은 어떠한 것이었나를 논의해 봄으로써 문제점 제기 및 향후 농협의 과제 도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첫째는, 조직 결성지도 및 관리이다. 농협은 아직 농가 스스로가 조직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육성초기에 조합원 스스로가 조직화하도록 유도 또는 직접 조직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조직의 양적 증대는 물론, 농가의 조직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뿐만 아니라 각 회원조합에서 육성하고 있는 작목반을 시·군 단위, 도 단위, 전국단위로 전산화하여 평가·관리함으로써 정부 및 농협 자체 지도·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왔다.

둘째는, 영농지도이다. 작목반 및 농가에 대

한 영농지도는 산지 생산·유통단계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지도이어야 한다. 즉, 특정품목에 대한 생산기술지도는 물론, 판매·유통지도를 통한 종합적인 지도가 수행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신기술 및 소비지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제공 및 경영지도까지도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농협에서는 회원조합별로 영농 전문지도요원을 별도로 확보 운용하고 있으며 ('95년말 기준 1,548명), 작목반의 자체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선진지 견학 및 전문가 초빙교육 등을 조합에서 직접 주관 또는 지원함으로써 작목반 및 농가 지도사업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회 차원에서는 새농민기술대학 및 농업경영기술지원단 설치 운영을 통한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는, 영농자재의 공동구매 공급이다. 작목반에서 반원별 영농자재 수요량을 취합하여 조합에 신청하면, 조합에서는 이를 작목반별로 취합 대량 공동 구매함으로써 우수자재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외상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조합에서 자체 구매사업장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넷째는, 농산물의 공동판매 지도이다. 작목반 육성초기에만 하더라도 지도사업의 주목적은 증산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팔아주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농협 지도사업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잘 팔아주기 위해서는 판매사업 뿐만이 아니라 수확 이전단계에서부터 우수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한 수확된 농산물의 철저한 선별·포장을 통한 상품성제고 등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농협에서는 규격출하 지도는 물론, 선별·포장시설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농가가 이용토록 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를 도모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상품화된 농산물을 대량 판매함으로써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출하농가의 출하시기 및 출하처 결정을 돕기 위하여 시장가격동향 및 출하정보를 제공하고, 판매대금의 농가별 정산을 조합에서 대행함으로써 개별 농가정산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고 저축과 연계하여 자금의 낭비 방지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표 2〉 작목반에 대한 연도별 농안기금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개, 명)

구 분		'91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계획)
지 원 금 액		36,400	94,000	98,580	100,000	140,566	149,500
지 원 대상자수	-조직수(개)	4,459	8,852	9,000	9,389	8,944	7,179
	-반원수(명)	46,602	96,883	102,987	86,202	82,030	70,226
평 균 지원금액	-조직당	8.16	10.62	10.56	10.65	15.72	20.20
	-반원당	0.78	0.97	0.96	1.16	1.71	2.06

자료: 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

다섯째는, 영농자금의 확보 지원이다. 최근 일부 시설원에 재배품목의 경우에는 연중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절별 자금회전에 별 문제

가 없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농가에 있어서는 영농준비에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농협에서는 자체자금을 확보하여

작목반을 중심으로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영농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작목반 조직활동을 조장하고 조직단위의 공동출하를 강화하기 위하여 '84년도부터 정부 농안기금을 확보하여 지원해 오고 있으며, '95년도부터는 규격출하자금과 통합하여 조직단위의 공동규격출하를 통한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유통거래질서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여섯째는, 우수조직 선발 및 시상이다. 우수조직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목적은 우수조직에 대한 사기진작 및 조직활동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보급함으로써 여타조직에 대한 활동모델로 삼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수조직 선발시상은 조합단위에서부터 시·군 단위, 시·도 단위, 중앙단위까지 단계별로 실시되는데 중앙단위에서는 '85년도부터 매년 6개조직을 선발하여 시상금을 수여해 왔으며, '96년부터는 농업의 세계화를 위하여 조직단위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단위 우수조직

선발 시상을 장려하고 작목반단위 유통정보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95년부터 매년 약 2,000여개의 조직을 선발하여 퍼스널컴퓨터(PC) 및 팩시밀리(FAX)를 지원하고 있다.

4. 문제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년('96)으로 27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작목반은 그동안 과학영농·경영비 절감·유통개선을 실천하는 지역농업발전의 핵심조직으로서 조직수나 사업내용에 있어서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조직이 잔존하는등 조직의 육성·관리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파채로 남아 있다. 따라서 21C의 새로운 경제·사회환경을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작목반이 해결해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작목반의 미래상을 정립해보고자 한다.

<표 3> 성별·연령별 농가인구 변화 추이 (단위:천명)

연도별	총농가인구		19세 이하		20~49세		50~59세		60세 이상	
	남	자	남	자	남	자	남	자	남	자
70년	14,422	7,164	7,768 (54%)	4,028	4,404 (30%)	2,096	1,107 (8%)	539	1,143 (8%)	500
80년	10,827	5,415	4,914 (45%)	2,555	3,701 (34%)	1,857	1,074 (10%)	496	1,138 (11%)	507
90년	6,661	3,279	2,104 (31%)	1,078	2,259 (34%)	1,157	1,111 (17%)	513	1,187 (18%)	531
93년	5,407	2,610	1,457 (27%)	745	1,679 (31%)	841	1,004 (19%)	458	1,267 (23%)	566
95년	4,838	2,367	1,095 (23%)	560	1,622 (33%)	843	867 (18%)	394	1,254 (26%)	570

자료:농림수산주요통계 ('96)

가. 조직관리 측면

첫째는, 유명무실한 조직 잔존 및 규모

화 미흡이다. 작목반은 품목별 자율 생산자조직으로서 농가 스스로의 필요성 인식에 기초하여

조직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육성초기부터 많은 조직이 농협의 육성계획에 의해 타의적으로 조직되어 왔다. 이는 조직의 양적 확대와 발전을 가져온 반면, 농가의 참여도가 낮아 조합의 관심 및 지원여부 그리고 조직장의 활동수준에 따라 조직의 발전정도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다수의 조직이 1~2개의 자연부락단위로 조직된 소규모조직으로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규모확대 및 공동출하 협동조직으로의 발전이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는, 우수조직장 육성 미흡이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부녀화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젊고 유능하며 지도력과 사명감을 갖춘 우수조직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리장 및 영농회장등과 겹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조직발전에 전념치 못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셋째는, 발전단계별 평가체계의 미흡이다. 우수조직에 대한 집중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평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회원농협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직평가가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시·군지부의 관리기능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부실조직 잔존 및 조직과대평가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나. 사업 추진면

첫째는, 조직단위 공동사업 정착 미흡이다. 생산단계에서의 영농자재 공동구입은 정착 단계에 들어섰으나 생산공동작업, 농기계공동이용, 공동선별 및 포장작업 등의 공동사업 실행율은 아직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출하단계에 있어서도 공동상표사용, 공동수송, 공동판매 등은 정착단계에 들어섰으나, 시설의 공동이용 및 공동계산제 실시를 통한 유통효율성 증진활동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는, 계통출하 비율의 저조이다. 작목반은 순수 농민

생산자조직으로서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판매는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할 분담을 통한 상호 보완발전적 방향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작목반들이, 특히 조직의 발전단계가 높아질수록 계통출하를 기피하고 직접 출하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 농협과의 역할 분담체제의 붕괴에 따라 결국에는 농협과 생산자농민 모두에게 비효율성을 안겨줄 뿐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농협에서는 생산농가에 대해 단순 계통출하만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 전단계에 대한 지도·지원 강화 및 판매처리능력 확대를 통하여 생산자 농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판매사업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는, 정부지원사업 추진체제 미흡이다. '90년대 이후 정부의 영농조합법인 집중 육성시책에 따라 일부사업에 있어서는 아예 작목반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다. 농협의 지도 측면

작목반 육성·관리에 있어서의 또 다른 문제점은 농협 내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 동안 농협이 작목반의 육성주체로서 제 역할을 다하여 왔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의 작목반이 있기까지 농협의 공헌과 역할은 실로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과 작목반간의 상호 보완자적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키워 놓으면, 독립하여 대응조직으로 발전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전단계에 대한 지도·지원이 소홀히 한 채 계통출하만을 권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생산자인 농가입장에서는 「농협이 도움은 주지 않고 수수료만 챙긴다」고 인식하여 조합을 배제한 자체사업을 추진하려는 조직이 발생하고 있다. 지도인력 측면에서도 농가에 대한 농산물 생산·판매지도를 전담시키기 위한 회원농협 영농지도요원 확보현황은 '95년말 현재 총 1,548명으로 조합당 평균 1명 내외에 불과한 실정으로 농민의 욕구에 부응한



품목별 전문화 지도·지원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 원인은 산지 대부분의 회원조합이 아직도 소규모 경영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여러명의 영농지도요원을 채용하여 품목별로 전담 운용하기에는 조합의 경영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병을 통한 회원조합의 규모화가 절실히 필요하며, 그 이전단계까지는 현재 농협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농지도요원 군단위 POOL 운용 등과 같은 보완적 조치가 필요하다.<sup>3)</sup> 한편 중앙회의 지도·지원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다품목·다수조직에 대한 균분 지원방법이 추가 되어 왔으며,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자금지원, 우수조직선발 시상, 유통정보기기 지원 등의 단순 지원사업이 주류를 이루어 사업지도·지원을 통한 조직활성화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 III. 작목반의 발전방향과 농협의 과제

#### 1. 조직의 규모화와 품목별 전문화

조직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는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지금과 같은 소규모(마을단위) 조직으로서 주변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조직의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른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목반의 평균반원수를 기준으로 한 조직의 규모화 진전은 최근 5년동안에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표1 참조), 농촌인구의 감소 및 농가당 재배규모의 증가에 따라 그 양상은 더욱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조직의 규모화 및 광역화 추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필자의 견해는 약간 다르다. 그 이유는 작목반에 대

한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즉, 작목반이란 생산자 조직으로서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주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 광역화를 통한 자체사업추진에 노력하기보다는 협동활동이 용이한 소규모 조직형태로서 운영하되 소속 농가 각자가 해당품목에 대한 전문가로서 농가의 품목별 전문화를 이루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상업농 시대에 있어서 농업의 상업적 기능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 기능을 바로 농협에서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회원농협이 생산자단체로서 관내 작목반과 작목반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여 줌으로써 생산자 조직의 규모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협에서는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품목별 전업농 육성 및 이를 기초로 한 품목별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의 작목반을 육성해 나가야 하며, 회원조합은 자체 사업역량 강화 및 작목반 육구에 부응한 실질적인 생산·유통지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작목반과의 효과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상호보완발전적방안을 수립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시·군단위 연합조직 결성을 통한 지역농업의 활성화

급변하는 대·내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조직도 읍·면단위 이상의 광역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제의 본격 추진에 따라 농협에서는 시·군단위 품목별 협의회 및 동 연합회를 결성을 통하여 지역농업 활성화의 구심체로 육성하고 있다.

구체적인 육성방향으로서는 첫째, 생산자 조

<sup>3)</sup> 영농지도요원 군단위 POOL운용이란 각 지역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농지도 인력을 군 단위로 통합하여 POOL로 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2권 제2호(1995년 12월) 124~126p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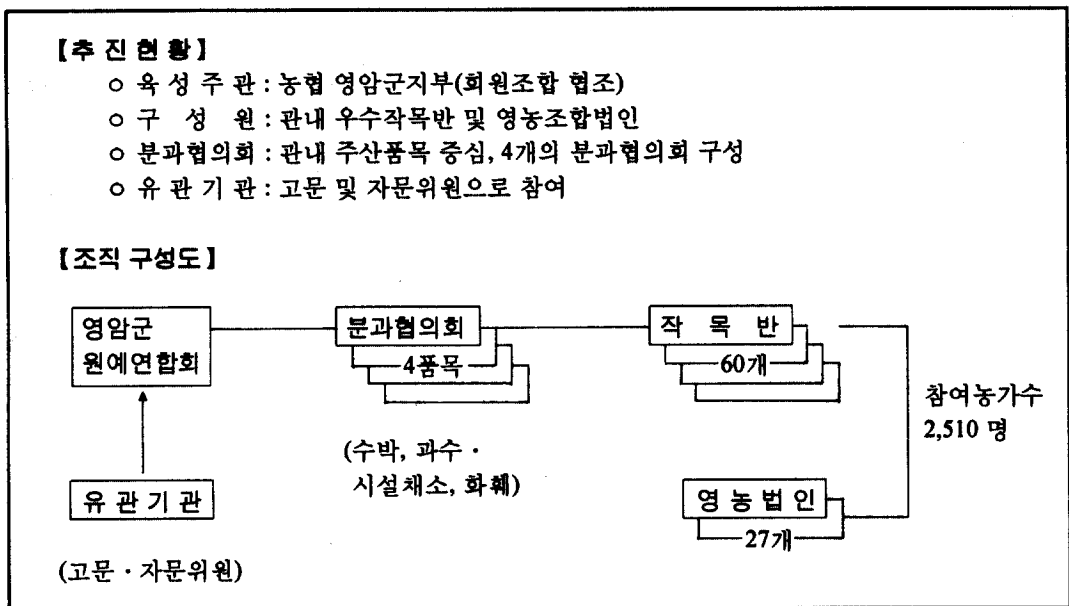
직의 일원화 및 지도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이다. 최근 영농조합법인의 급증에 따라 작목반과 이원화 되었고, 이들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기관들도 상호 역할분담체계 없이 각자 독자적인 지도사업을 전개해 왔던 까닭에 생산자조직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작목반은 물론 영농조합법인까지 참여하는 시군단위 생산자 연합조직을 결성하고, 지도기관간의 상호 역할분담을 통한 지도·원의 일원화체계를 구축 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농업발전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다. 지역특산품목에 대한 군단위 단일상표 개

발·등록 등을 통하여 농산물의 시군단위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각종 유통시설 등을 공동운영 또는 이용함으로써 이용률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체에 부응한 효과적인 농정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정이 추진될 수 있으며, 농협으로서는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농민실익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로 군단위 품목별협의회 및 동 연합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남 영암군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사례 : 시군단위 생산자조직 결성(전남 영암군)〉



3. 신물류업태에 부응한 표준규격 출하 정착

농산물은 부피가 크고 품질이 일정하지 못해 표준규격화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농산물의 표준규격화는 수송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에서의 경매를 용이하게 하며, 상품성을 높여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고 유

용정보의 신뢰도를 높여 주문구매를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막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 특히 대단위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표준규격 출하는산지유통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출하자 농민 개개인이 조직활동을 통하여 표준규격출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실천하

여야 한다.

따라서 농협에서는 작목반을 중심으로 표준규격 출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정부 농안기금을 확대 확보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나아가서는 조합과 작목반간 또는 반원 상호간의 신뢰에 기초한 조직단위 공동계산제 실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육성방법으로는 첫째, 자체상표 개발 촉진 및 상표 의장등록의 확산이다. '95년도 한 해 동안에 회원농협 자체상표 개발건수는 총 4,70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상표 의장등록도 83건으로서 '90년도 이후 농산물유통에 있어서 상표의 중요성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자체상표를 갖는 것은 규격출하의 시작으로 출하자 농민에게는 “얼굴있는 농산물”을 출하하여야 한다는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표준규격 출하에 대한 지도요원의 육성이다. 현재 농산물검사소가 규격출하 지도 전담기관으로 되어 있으므로 농협으로서는 농산물검사소와 협조하여 생산자에 대한 규격출하 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하며, 자체적으로도 공판장 및 회원농협 관계자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작목반 자체 규격출하 검사원 육성을 활성화하여 작목반 단위 자율에 의한 규격출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셋째는, 산지 유통시설의 효율적 운영이다. '95년말 현재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별·포

장시설은 총 108개로 나타나 있다. 시설별로는 농산물포장센터 8개소, 청과물종합유통시설 25개소, 기타 선과장이 75개소이다. 이들 시설은 대부분 이용률이 저조하여 조합의 경영압박 요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 농가 입장에서도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경영비 절감활동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표준규격 출하를 정착시키는데 심본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는, 규격출하 우수조직에 대한 집중지원이다. 정부 농안기금으로 지원되는 공동규격 출하 촉진자금 및 포장재 국고 보조사업은 물론, 규격출하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농협 물류센터 전속출하주로 등록 관리하고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전 조직에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첨단 시설원예농업의 육성

과거의 농업은 대부분의 재배조건이 자연에 의해 의존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과학의 발전에 따라 태양, 토양, 비, 사람이 없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이른 바 4무농법이 가능한 시대에 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첨단과학을 이용한 첨단원예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시설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표 4〉 시설원예 생산액과 농업(재배업) 생산액 (단위: 억원)

구 분		'86	'88	'90	'91	'94
시 설 원 예 생 산 액	채 소	2,964	4,075	7,613	11,449	17,736
	화 껍	283	533	1,197	1,760	2,863
	소계(A)	3,247	4,608	8,710	13,209	20,599
재 배 업 총 생 산 액		77,709	102,400	110,253	975,939	159,682
재배업 총생산중 A의 비중		4.2	4.5%	7.9%	11.6%	12.9%

자료: 오세익, 1996. 첨단 시설원예농업의 현황과 정책과제(농정연구포럼)

사실 단순 시설원에 농업의 발달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시설원에 재배면적은 '95년말 현재 44,282ha로 일본의 49천ha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배업 국내 총생산액(GDP)에 대한 점유비도 '86년도 4.2%에서 '94년도에는 12.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그러나 시설원에 재배면적중 약 99.5%가 재래식 파이프비닐온실로서 농가의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지원부문은 기존 비닐온실 재배농가의 자동화시설 지원에는 등한시 한 채 현대화된 자동온실 신규 설치에만 집중 지원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존 시설재배농가는 정책 지원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원부문이 대부분 거액의 투자가 요구되는 유리자동온실과 영농조합법인 등의 법인조직에만 지원되고 작목반에 대한 지원은 배제되어 있어 부실한 영농조합법인 난립의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농협에서는 정부 정책지원 방향에 대한 개선을 건의함은 물론, 자체적으로는 작목반을 중심으로 기존 시설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및 점진적인 첨단시설 농법의 도입을 통한 건설한 시설원에농업을 육성할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구체적인 지도·지원방안으로서는 첫째, 시설형태 및 재배환경 개선이다. 첨단 표준온실 개발 보급 및 이스라엘식 온실의 시범설치 운영을 통하여 국내 농업환경에 적합한 저비용·고성능 첨단비닐온실 설치를 지도하고, 작업환경 개선이 시급한 기존비닐하우스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저리자금을 확보하여 자동화 개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는, 첨단농법의 단계별 도입 지도이다. 재배방법이 비교적 용이한 관비재배법을 우선 도입 보급하고, 일정수준 기술이 축적된 관비재배기술 습득자 중 선별적으로 양액재배법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는, 생산된 우수농산물의 신물류업태에 대한 연계판매 지원이다. 첨단 원예시설 및 첨단 영농기법을 이용한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지도

하고 이들 농산물에 대해서는 작목반단위로 생산공급계약 및 출하약정을 체결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제고 및 첨단 시설원에농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는, 첨단 농법에 대한 교육 및 지도인력 육성이다.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화 농업지도자교육원에 첨단농법 과정을 신설하고 선진국의 업체와 제휴하여 재배농가에 대한 첨단농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농협 영농지도요원의 첨단농법 지도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이스라엘등 선진국에 대한 해외연수도 '96년도 15명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5. 지역농협과의 역할분담체제 확립

작목반 및 생산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지역농협에서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산·유통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보완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나 이러한 상호 역할분담체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농협이 농협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 실천방법에 대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생산자조직과 농협의 역할을 정립하는 일이다. 즉, 생산은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이 담당하고, 판매는 농협이 전담하는 상호간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영농시설도 개별적인 영농시설은 농가단위로 설치 이용하고 선과장, 포장센터, 저온저장고 등 대규모 산지유통시설은 농협에서 설치하여 생산자들이 전이용 할 수 있도록 생산-판매 일관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산지 유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는 작목반을 들판단위로 조직하여, 작목반간에는 극조생종에서 만생종까지 품종을 적절히 조정·재배함으로써 산지유통시설의 주년이용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는, 회원농협 영농지도인력 운용의 강화

이다. 현재 지역농협의 영농지도요원 확보현황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합당 1명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나마 영농지도 이외에 타업무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생산자 농가의 욕구에 부응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회에서는 영농지도요원 미확보 및 미운용 농협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시 차등화 함으로써 영농지도요원 미확보농협을 일소해 나가고, 또한 영농지도요원 군단위 POOL운용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현장 영농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합병 및 조합의 품목별 전문화 등을 통한 조합단위 영농지도가 품목별로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셋째는, 조합자체 판매장의 확보 및 소비자사업장과 연계한 판매사업 강화이다. 생산자 농가의 영농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적 실익추구에 있다. 때문에 농협으로서는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는, 조합과 작목반간의 신뢰도 강화이다. 조합의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직원은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며, 농산물 생산·판매지도사업이 농협의 원천적 기능이다」라는 인식을 새롭게 가지고 조합원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의 운영과정에 대해서도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받는 농협이 되어야 할 것이다.

## 6. 중앙회의 효과적인 지도·지원방안

앞에서 작목반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고 이에 대한 농협의 과제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하여 기술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는, 중앙회의 지도·경제사업에 대한 기능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회의 직제 개편이나 소비자 판매사업기능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현재 소비자 판매사업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전국 주요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판장, 집배센터, 그리고 소매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슈퍼 및 직판장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농협유통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유통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신물류시대를 맞이하여 대표적인 생산자 단체인 농협은 생산자농민의 소득을 제고하고 농산물 신유통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물류센터건립 추진 및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도·경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직제 개편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지적이 있다. 특히 농협 시·군지부의 지도·경제인력 구조는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직접적인 생산자농민에 대한 지도는 물론, 회원조합에 대한 효과적인 사업지도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WTO체제 출범에 따라 우리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품목별 전문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 입각하여 중앙본부의 직제를 품목별로 개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우수조직·유망품목에 대한 집중 지도·지원이다. 지금까지는 이른 바 나눠먹기식 분산지원이 주를 이루어 왔으며, 우수조직에 대한 지원은 우수조직 선발 시상 및 기기지원 등의 단순 지원사업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따라서 앞으로는 21C를 내다보고 경쟁력 있는 유망품목을 개발하여 선정 보급하고, 이들 품목에 대한 전문적인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조직을 선정하여 단순 지원사업보다도 생산기술 및 판매지도 등 사

업지도를 병행한 종합적인 지도·지원사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회원농협에 대한 지도방향에 있어서도 과거 경영약체조합 위주의 보조성 지원에서 벗어나 자립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우수조합 위주로 지원방향을 전환하고 약체조합에 대해서는 인근조합과의 합병을 통한 경영체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IV. 맺 음 말

우리나라의 농업여건은 대외적으로는 WTO 체제 출범에 따라 세계경제의 통합 가속화에 따른 자유무역의 확대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OECD 가입에 따른 경제제도 및 법규·관행의 선진화로 각종 정부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의 유통사업 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촌·농민의 농협에 대한 기대와 욕구는 한층 높아져 가고 있으며, 농협은 대표적인 생산자단체로서 의당 그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대내외 유통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작목반이 나아갈 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하여 농협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에 대해 논술했다. 즉 생산자 농민과 농협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생산자 농민은 자주·자조정신을 갖고 조직활동을 통한 전문농업으로서 성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며, 농협으로서는 이러한 농민·생산자조직의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도·지원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협은 궁극적으로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성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국제화·개방화시대의 난관을 극복하여 계속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 V. 참 고 문 헌

1. 강정일의 3명, 1992. 시설원예농업의 실태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보고 261/92. 12월)
2. 김명환외 7명, 1996. 농협 경제사업의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3. 김종환, 1983. 작목반의 운영실태와 과제,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83년 11월호)
4. 농림수산부, 1996. 농림수산주요통계
5. 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 1996. 작목반 재도약운동 추진계획
6. 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 1996. 첨단원예농업 지도 지원방안
7. 성준경외 4명, 1992. 농산물 생산조직 육성과 농협의 과제, 건국대학교 축산개발대학원.
8. 오세익, 1996. 첨단시설원예농업의 현황과 정책 과제, 사단법인 농정연구포럼 (제35회 월례세미나 결과보고서)
9. 최찬호, 1990. 작목반조직의 육성방향, 농협중앙회(농협조사월보 '90년 7월호)
10. 최찬호, 1990. 협동출하조직의 조합사업 참여에 관한 조사연구, 농협중앙회 (농협 조사월보 '90년 8월호)
11. 한동기외 4명, 1992. 공동출하조직의 운영과 육성방향, 건국대학교 축산개발대학원.